

「신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고서

김태룡*

대한성서공회 총무님께

주님 은총 아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다리던 차 출간된(1995년 11월) 「신약전서 개역 개정판」을 반겨, 96년 한 해 동안 열 차례 되풀이하여 읽고, 아울러 개정 감수위원회 보고서도 자세히 읽은 바 있습니다. 그 뒤 거의 일 년이 지난 최근호 「성서한국」(제43권 3호-1997, 가을치)에서 감수위원회 위원장과 서기 일을 맡았던 분의 성경전서 개정 작업을 마친 회고 대담 기사를 읽고, 다시 한 차례 「신약전서 개역 개정판」을 정독하였습니다.

10년에 걸쳐 개정 원고를 마련한 개정위원과 1년 반 동안 신약전서를 감수하여 개정판을 상재케 한 감수 위원의 노고를 높이 기리어 마지않습니다.

그 공력으로 「개역 한글판」의 오역을 바로잡고, 우리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꾼 것들은 신약 이해에 새로이 길을 터놓았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공표하신 개정 원칙에 비추어 바르게 처리되지 못하였다고 느껴지는 바를 적어 보았습니다.

각 교단에서 대표로 파송된 성서학자, 신학자와 또 국어학자의 합의 작품에 대하여, 어설픈 소견으로 제 무식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저어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대안 제시는 삼갑니다.

1. 개정 작업 원칙

이 글에 들어가는 길잡이로 ‘개정 작업 원칙’의 중요 내용을 적는다.
그 조목들은 감수위원장 회고담대로 옮긴다.

* 「개역한글판」 원고 작성 및 출판 실무 담당자

- (1) 문법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2)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 (3) 「개역」 당시 어휘 선택이 현재 그 의미가 바뀌어 오해가 있을 경우 현대 어휘로 고친다. 과거에는 통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잘 쓰이지 않거나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바꾼다.
- (4) 제3인칭 대명사 ‘저’와 ‘저희’는 각각 ‘그’와 ‘그들’로 고친다.
- (5)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로잡는다.
- (6) 준말은 그 원말로 바꾼다.
- (7)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한다.
- (8) 명사나 대명사에서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 소유격과 복수형을 밝힌다.
- (9) 오역임이 확실한 것은 바른 번역으로 고친다.

2. 문법(어법)에 관련되는 것.

2.1. ‘낳고’의 문제 (마 1:2-16)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낳고... 낳고.. 낳고” (마 1:2-16)

사람의 계보를 말할 때, 우리말 어법으로는 ‘낳고’라 쓰지 못한다. 그것은, 첫째 함부로 하는 말이 되고, 둘째 ‘낳고... 낳고... 낳고...’라고 함은 분만 동작이 연상되어 혐오스러운 느낌이 든다.

2.2. ‘-자(者)’의 문제 (마 5:3-10)

2.2.1. 바로잡아야 할 곳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 5:3-10)

‘자’는 ‘사람·이’와 ‘놈’의 뜻으로 두루 씌어 왔다. 이것은 ‘사자·선지자·목자’ 따위 한자어 구성의 ‘자(者)’와 같이 보아서는 안된다. 현대의

어감으로는 ‘놈’ 하면 사내를 가리켜 ‘못된 놈’으로 낮추어서 하는 말이 된다. 높임말, 예삿말, 낮춤말의 구별이 뚜렷한 우리말 어법에 맞게 가려 써야 할 낱말이다. 개정판에서도 ‘의로운 사람’(마 1:19), ‘왕으로 나신 이’(마 2:2)와 같이 쓰인 예가 많이 있다. 그런데 개정판 전반에 걸쳐 구별 없이 ‘자’로 쓴 실례가 많아, 어감·정서상 바로잡아야 할 곳이 있다.

마태복음서에서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난한 자(5:3; 11:5; 19:21; 26:9,11), 애통하는 자(5:4), 은유한 자(5:5), 목마른 자(5:6), 긍휼히 여기는 자(5:7), 청결한 자(5:8), 화평하게 하는 자(5:9), 박해를 받은 자(5:10,44), 잉태된 자(1:18,20), 구원할 자(1:21), 다스리는 자(2:6), 찾던 자(2:20), 말씀하신 자(3:3), 외치는 자(3:3), 기뻐하는 자(3:17), 앓은 자(4:16), 앓는 자(4:24), 고통당하는 자(4:24), 귀신 들린 자(4:24; 8:16,28,33), 간질하는 자(4:24), 노하는 자(5:22), 라가라 하는 자(5:22), 송사하는 자(5:25), 보는 자(5:28), 장가드는 자(5:32), 가지고자 하는 자(5:40), 구하는 자(5:42; 7:11), 의로운 자(5:45), 사랑하는 자(5:46; 12:18), 믿음이 적은 자(6:30; 8:26,28; 14:31; 16:8), 금식하는 자(16:18), 외식하는 자(6:5; 7:5; 15:7; 22:18; 24:51), 들어가는 자(7:13), 찾는 자(7:14), 주여 주여 하는 자(7:21), 행하는 자(7:23,24; 13:41), 권위 있는 자(7:29), 따르는 자(8:10), 죽은 자(8:22; 10:8; 11:5; 14:2; 17:9; 22:31,32; 27:64; 28:7), 치던 자(18:33), 건강한 자(9:12), 붙이는 자(9:16), 피리 부는 자(9:23), 병어리 된 자(9:32; 12:22), 병든 자(10:8), 합당한 자(10:11), 견디는 자(10:22; 24:13), 죽이지 못하는 자(10:28), 따르지 않는 자(10:38), 영접하는 자(10:40,41), 작은 자(10:42; 18:6,10,14), 주는 자(10:42), 더 나은 자(11:9), 여자가 낳은 자(11:11), 극히 작은 자(11:11), 치노하는 자(11:12), 귀 있는 자(11:14; 13:9,43) 슬기 있는 자(11:25; 25:2,4,8,9), 아들을 아는 자(11:27), 계시를 받는 자(11:27), 짐진 자(11:28), 함께 한 자(12:3, 4), 무죄한 자(12:7), 강한 자(12:29), 반대하는 자(12:30), 함께 아니하는 자(12:30), 헤치는 자(12:30), 뜻대로 하는 자(12:50), 씨를 뿌리는 자(13:3), 있는 자(13:12 25:29), 없는 자(13:12), 뿌려진 자(13:19), 넘어서는 자(13:21), 결실하지 못하는 자(13:22), 깨달은 자(13:23), 손을 대는 자(14:36), 비방하는 자(15:4), 인도하는 자(15:14), 먹은 자(15:18), 넘어서게 하는 자(16:23), 불 자(16:28), 기뻐하는 자(17:5), 큰 자(18:4 23:11), 빛진 자(18:23), 장가드는 자(19:9), 타고난

자(19:11), 받을 만한 자(19:12), 버린 자(19:29), 먼저 된 자(19:30; 20:16), 나중 된 자(19:30; 20:16), 나중 온 자(20:8), 먼저 온 자(20:8,10), 크고자 하는 자(20:26), 섬기는 자(20:26; 23:11),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20:27), 저는 자(21:14), 떨어지는 자(21:44), 남은 자(22:6), 살인한 자(22:17), 선한 자(22:10), 칭함을 받은 자(22:14), 택함을 입은 자(22:14), 살아 있는 자(22:32), 대답하는 자(22:46), 묻는 자(22:46), 땅에 있는 자(23:9), 높이는 자(23:12), 낮추는 자(23:12), 들어가려 하는 자(23:12), 맹세하는 자(23:20,21,22), 지혜 있는 자(23:34), 파송된 자(23:37), 읽는 자(24:15), 유대에 있는 자(24:16), 지붕 위에 있는 자(24:17), 밭에 있는 자(24:18), 아이 밴 자(24:19), 짓먹이는 자(24:19), 택하신 자(24:22,24,31), 나눠줄 자(24:45), 미련한 자(25:3,8), 파는 자(25:9; 26:46,48), 달란트 받은 자(25:16,17,18,20,22,24), 가진 자(25:28), 없는 자(25:29), 오른쪽에 있는 자(25:34), 복 받을 자(25:34), 지극히 작은 자(25:40,45), 왼편에 있는 자(25:41), 저주를 받은 자(25:41), 함께 있던 자(26:51), 칼을 가지는 자(26:52), 너를 친 자(26:68), 가격 매겨진 자(27:9), 지나가는 자(27:39), 섰던 자(27:47), 지키던 자(27:54; 28:14), 속이던 자(27:63), 사흘에 짓는 자(27:40).

2.2.2. 허용되는 곳

아래의 경우에는 ‘자’를 허용한다.

악한 자(5:39; 7:11; 13:19,38; 21:41; 22:10), 예수를 판 자(10:4), 선지자를 죽인 자(23:31), 돌로 치는 자(23:37), 유다라 하는 자(26:14), 입 맞추는 자(26:48), 예수를 잡은 자(26:57).

2.3. ‘-옵’의 문제 (마 6:9-13)

“..... 이루어지게 하옵소서”(10절),
 “ 건져 주옵소서”(13절)

12절에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가 있다.

‘하시옵고, 주시옵고’와 ‘하옵시고, 주옵시고’ 사이에는 문법상 큰 차이가 있음을 저버리고 혼용하는 말투를 그대로 두고 있다. ‘-옵’의 쓰임을 그르친 것이다. 국어사전의 풀이를 보면, ‘-옵 [선어미]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 공손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설명하고 있고, 용례로 ‘가시옵소서’를 들었다. 높임말 받으실 행동 주체(예수님, 하나님, 주님)에게 공손함을 나타내고, 그 높임말을 하는 행동 주체(아랫사람, 종)가 스스로를 낮추어 공손함을 나타내는 보조 어간이다. 반드시 ‘하시+옵’, ‘주시+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잘못된 곳을 4복음서에서만 살펴본다.

하옵소서	마 8:8,21; 26:39; 마 26:39(2); 막 6:36; 14:36 눅 9:59; 11:4; 요 4:15; 18:28; 17:1,5,11,17,21; 행 4:30; 롬 11:10
주옵소서	마 6:13; 15:15; 막 9:22; 10:37; 눅 9:28; 11:1; 23:34; 요 12:27; 13:9; 14:8)
마옵소서	마 16:22; 27:19; 막 5:7; 눅 7:6; 8:28; 행 23:21)
보옵소서	눅 18:28; 요 11:34

2.4. ‘당신’의 문제 (마 3: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 3:14)

우리말 어법으로 웃어른을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 ‘당신’이라 하지 못한다. 국어사전 풀이를 보면, ‘당신 [인칭대명사] ① ‘하오’ 할 자리에 상대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 ② 웃어른을 높이어 일컫는 말(제3인칭으로 씀)’. 용례로 ‘아버님 생전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던 물건들“을 들었다.

○ 사전 풀이 ①의 경우를 그르친 곳;

마 3:14; 11:3; 12:47; 17:16; 22:16,17; 25:24,25; 막 3:32; 7:5; 12:14;
눅 5:33; 7:19,20; 8:20,49; 9:40; 11:27; 15:27; 19:21,39; 20:21; 23:42;
요 1:49; 3:2; 4:9,11,12; 6:30; 7:3; 18:30; 20:15,28; 행 24:19; 25:26;
26:2,3,29

○ 사전 풀이 ②의 경우를 헤아릴 때 ‘자기’로 그르친 곳;

마 3:16....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1:21; 8:18; 12:16; 14:22; 16:20; 막 1:10; 1:34; 3:12,13,14; 5:30,40; 6:45; 8:30; 13:27; 14:35; 눅 3:17; 4:16,41; 7:16; 7:39; 8:39; 9:47; 14:12; 19:11; 24:27; 요 1:11,29,47; 2:21; 4:23; 5:18,26; 6:41,64; 7:10; 8:31; 13:1; 14:22; 행 3:18; 5:32; 20:28; 롬 3:25,26; 5:8; 8:32; 10:3; 11:1,2; 15:3; 고전 2:9; 고후 5:18,19; 갈 1:4; 2:20; 엡 1:20; 5:27; 빌 2:7,8; 3:21; 골 1:20; 살전 2:12; 딤후 2:13; 히 4:10; 7:21,27; 8:12; 9:25,26; 10:13; 11:6; 12:3; 13:21; 약 1:18; 2:5; 계 17:17

2.5. ‘저’의 문제 (마 8:20)

“... 주여 원하시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구절의 ‘저’는 스스로를 일컬을 때, 낮춤말로 쓰인 좋은 예이다. 한편, 마태복음 8장 5-9절 “...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의 경우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하며 간구하면서 스스로를 낮춤말로 일컫지 않음은 잘못이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스스로를 낮춤말로 쓰지 않음은 잘못이다. 그 밖에 간구하는 입장에서 잘못 씀이 많다. 예를 들면,

마 8:21; 9:18; 14:28,30; 15:22; 17:15; 18:26; 19:16,20; 20:21; 25:20,22; 26:22

막 5:23; 9:17; 10:17,20; 11:24,27,32

눅 1:46,47; 2:49; 5:8; 7:6,7,8; 10:25,29; 13:8; 15:18,21; 16:24; 18:3,8,38,39; 19:8; 22:42; 25:20

요 4:9,47,49; 5:7; 11:21; 13:6,8,9; 20:15,28

2.6. ‘이르되’의 문제점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을 예로 들어 본다. 본디 번역 ‘가로되’를 개정판에서 통틀어 ‘이르되’로 고쳤다. ‘이르되’는 평교간이나 아랫사람에게는 거리낌없이 쓸 수 있지만,윗사람에게는 쓰지 못하는 방법이다. 나병환자는 간청하는 입장에서 ‘주여...’ 하고 아뢰 때 높임말을 써야 한다. 그런 경우에 높임말로 쓰인 사례도 많다.

곧 여쭙어 이르되(마 7:4), 여짜오되(마 11:3; 12:47; 26:22; 눅 9:12,13,33,49,57; 10:29; 11:1; 12:41; 17:5; 18:21; 19:8; 요 6:8; 21:21), 여짜온대(막 11:30), 여짜와 이르되(막 8:28,29), 여쭙되(막 10:20; 11:21; 14:12; 눅 18:28; 요 11:21), 아뢰니(마 14:2; 눅 13:1), 고하되(막 9:5)이러한 분별을 가리지 않고 통틀어 일매지게 ‘이르되’로 몰아붙여 처리함은 잘못이다(계 5:14에 ‘...가로되’ 한 곳이 남아 있음).

총계 고쳐진 자리가 많지만, 가리지 못한 흠이 된 자리를 살펴보면 4복음서에서만 ‘이르되’가 420여차례 나오는데, 어법에 어긋난 170여자리를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2,6,8,21,25,31; 9:14,27; 13:10,36; 14:8,15,17,28;
17:10,14,19,24,26; 18:1,21; 19:3,10,16,18,20,25; 19:27; 20:7,21,30,31,33;
21:20,29,30,31; 22:23; 25:11; 25:20,22,24,37,44; 26:17,25,33,35,66;
27:21,62

마가복음 1:23,37,40; 3:11; 4:38; 5:7,12,23; 7:28; 8:5,19,20,24; 8:29;
9:11,21,24; 10:47,48,51; 12:16,18,32; 13:1

누가복음 1:38; 5:8,12; 7:4,6,20,40,43; 8:24,28,45; 9:19,20,38;
9:59,61; 10:17,25,27,37,40; 11:15; 12:13; 13:8; 14:22; 15:21,29;
16:24,27,30; 17:13,37; 18:11,13,18,26,38; 18:41; 19:16,18,20,25;
20:2,16,21,28; 21:7; 22:35; 23:42; 24:29

요한복음 1:38,48; 3:2,4,9; 4:11,15,17,19,25,31; 5:49; 6:34; 7:3;
9:2,38; 10:24; 11:3,12,24,27,32,34; 13:6,8,9,36,37; 14:5,8,22;
20:13,15,28; 21:15,16,17

3. 어휘에 관련되는 것.

3.1. 한자어를 그전대로 따른 것.

(1) 칭하다(일부는 ‘일컫다’ ‘부르다’로 고쳐짐)

마 1:16; 2:23; 22:43,45; 23:7,8,10; 막 11:17; 눅 6:13; 20:37,44; 22:25;
요 8:54; 엡 2:11; 히 5:10; 11:18,24; 약 2:23; 벵전 3:6; 계 19:13

(2) 거하다(일부는 ‘살다’ ‘있다’로 고쳐짐)

마 12:45; 눅 8:27; 11:26; 13:4; 21:35; 요 1:39; 5:38; 6:56; 8:31,35;
10:40; 12:46; 14:2,10,11,17; 15:4,5,6,7,10; 행 1:20; 2:26; 7:4; 롬
7:17,18,20; 8:9,11; 고후 5:6,8,9; 엡 2:22; 빌 1:24; 골 1:19,23; 2:9;
3:16; 딤편 2:15; 6:16; 히 11:9; 약 4:5; 벵후 2:8; 요일
2:10,14,17,19,24,27,28; 3:6,9,15,17,24; 4:12,13,15,16; 요이 2,9; 계 6:10;
12:12; 13:14

(3) 사하다(‘용서하다’로 고쳐짐)

마 6:12; 9:2,5,6,13; 12:31,32; 27:28; 막 1:4; 2:5,7,9,10; 3:28,29; 4:12;
11:25; 눅 1:77; 3:3; 5:20,21,22,24; 7:47,48,49; 11:4; 12:10; 23:34; 24:47;
요 20:23; 행 2:38; 5:31; 8:22; 13:38; 26:18; 롬 4:7; 히 10:18; 골 1:14;
2:13; 요일 1:9; 2:12

(4) 임하다(‘오다’ ‘내려오다’)

마 3:16; 6:10; 10:13; 12:28; 21:4; 24:3,27,37,39,42; 27:45; 막 9:1; 15:33;
눅 1:35,78; 3:2; 4:18; 11:2,20; 17:20; 21:26,34,35; 22:18; 23:42,44; 행
18:8; 2:2; 8:24; 11:15; 19:6; 고편 14:36; 골 3:6; 살전 2:16; 5:4; 딤편
1:15; 히 10:5; 약 5:1; 벵전 1:10; 벵후 3:12; 요일 5:6; 유 14; 계 3:10

(5) 응하다(일부분은 ‘이루다’로 고쳐짐)

마 1:21; 4:21; 18:31; 요13:18; 15:25; 17:12; 18:9; 19:24,28,36; 행 1:16;
13:27,29; 벵후 2:2; 계 17:17

(6) 인하여(일부분은 ‘말미암아’ ‘때문에’)

마 11:9; 24:9; 막 4:17; 6:26,34; 10:22; 눅 1:78; 2:20; 5:14; 7:35; 8:19;
11:8; 15:27; 19:37,44; 21:25; 22:45; 24:4; 요 4:42; 9:2,3; 10:33; 17:14;
행 3:10; 롬 5:15; 갈 6:12; 살전 1:2

(7) 기이히(대부분은 ‘놀랍게’로 고쳐짐)

마 21:42; 행 2:7; 3:10; 살후 1:10; 벵전 2:9

(8) 홀연히(대부분은 ‘갑자기’로 고쳐짐)

마 17:5; 막 13:36; 눅 2:13; 행 2:2; 9:3; 12:7; 22:6; 고편 15:51

(9) 심히(‘매우’ ‘몹시’로 구별하였으나)

마 2:16; 17:6,15; 21:35; 27:54; 막 5:38; 7:37; 9:20; 10:23; 12:3; 14:33,34,40; 16:4; 눅 5:26; 12:55; 22:62; 행 3:10; 6:7; 9:36; 15:39; 16:18,20; 26:11; 27:18; 롬 7:13; 고전 2:3; 고후 4:7; 갈 1:13; 빌 2:26; 살전 3:10; 요이 4; 요삼 3; 계 16:21

(10) ...고료(...‘므로’)

막 10:22; 눅 8:53; 요 10:4,5; 11:10; 18:18; 19:20,42; 20:29; 21:12; 행 2:31; 18:2; 24:22,26; 25:25; 고전 7:29; 8:7; 빌 1:19; 요일 4:5; 계 11:10

3.2. 예스러운 종결어미에 관한 것.

‘났느뇨 → 냐’ (마 13:54), ‘나타낼꼬 → 까’로 고친 것과 같이 현대어체로 고침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예스러운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오이다’(마 9:18; 13:51)

‘리이까’(마 11:3; 15:33; 18:21; 19:16,27; 19:25; 22:28; 막 6:24,37; 8:4; 10:17; 13:4; 눅 1:14; 3:10,12; 5:19; 10:25,33; 21:7,49; 요 6:28,68; 행 16:30)

‘니이다’(마 11:26; 14:17; 16:16; 17:26; 21:31; 22:21,42; 막 1:24; 3:11; 5:9; 8:19,20,29; 12:14,16,32,33; 눅 1:18,24; 2:32; 3:11; 4:34,41; 5:9; 7:43; 9:12,38; 10:21,36; 11:45; 16:30; 20:24; 23:34; 요 3:2; 17:3,12,13,14,15,17,19; 19:7,12,26; 20:28; 행 24:21,26,23)

‘니이까’(마 12:10; 19:3,20; 22:17,36; 막 10:2; 13:1; 눅 5:19,20; 10:29; 12:41; 13:23; 20:22; 요 4:12; 6:30; 행 9:5; 22:8; 26:15)

‘소이다’(마 11:26; 14:33; 21:30; 27:21; 막 8:5; 눅 5:8; 10:21; 18:13; 요 1:49; 17:2,9; 행 4:26)

‘리이다’(마 16:22; 17:4; 18:26,28; 눅 5:5; 9:57; 16:30; 요 4:25; 6:7

‘더이다’(마 17:16; 막 6:38; 9:18; 눅 5:20; 9:40; 10:17; 23:2; 요 3:26; 행 5:23,25; 17:7; 23:18; 25:25)

‘더이까’(마 25:44)

3.3. 어려운 낱말에 관한 것.

○ 잉태(수태·임신)

마 1:18,20,23; 눅 1:7,24,31; 2:5,21; 23:29; 갈 4:27; 히 11:11; 약 1:15

○ 심령(마음)

마 5:3; 눅 1:80; 요 11:33; 13:21; 고후 2:13; 엡 4:23; 빌 4:23; 골 2:5; 딤후 4:22; 몬 25; 벵후 2:8

○ 긍휼(자비·불쌍히)

마 5:7; 9:13; 23:23; 눅 1:50,54,58,72,78; 16:24; 롬 9:15,16,18,23; 11:30,31,32; 12:8; 15:9; 고후 4:1; 갈 6:16; 엡 2:4; 골 3:12; 딤후 1:2,13,16; 딤후 1:2,16,18; 딤 3:5; 히 4:16; 8:12; 약 2:13; 3:17; 5:11; 벵전 1:3; 2:10; 유 22,23; 요이 3

○ 수종(섬기다)

마 4:11; 8:15; 막 1:13,31; 눅 12:37; 17:8

○ 송사(고소·고발)

마 5:25,40; 12:10; 행 19:38; 24:8,19; 26:2; 고전 6:1,6,7; 딤후 5:19; 벵후 2:11

○ 핍박(대부분 ‘박해’로 고쳐졌음)

요 5:16; 행 26:14,15; 롬 8:35; 12:14; 고후 12:10; 갈 1:13; 4:29; 5:11; 6:12

○ 창수(홍수·큰물)

마 7:27

○ 역사(일하다·운동하다)

마 14:2; 막 16:20; 요 5:36; 롬 7:5; 15:18; 고후 1:6; 4:12; 갈 2:8; 5:6; 엡 1:19; 2:2; 3:7,20; 4:16; 빌 1:29; 2:12; 골 4:11; 살전 1:3; 2:13; 5:13; 살후 1:11; 2:11; 약 5:16

○ 패역(거역)

마 17:17; 행 2:40; 유 11

○ 구속(구원·속량)

눅 21:28; 롬 3:24; 8:23; 엡 1:7,14; 골 1:14

○ 실족(넘어짐)

마 5:29; 11:6; 18:6,7; 막 9:42; 눅 7:23; 17:1,2; 벵후 1:10

○ 도(말씀·가르침)

마 21:32; 22:16; 막 2:2; 12:14; 눅 20:21; 행 6:7; 9:2; 18:25; 19:9,23; 22:4; 24:14,22,24; 고전 1:18; 벵후 2:2

○ 교통(사귐)

고후 13:13

○ 음부(지옥)

마 11:23; 16:18; 눅 10:15; 16:23; 행 2:27,31; 계 1:18; 6:8; 20:13; 20:14

○ 무지갱(지옥)

눅 8:31; 롬 10:7; 계 9:1,2,11; 11:7; 20:1,3

3.4. 더 쉬운 말로 고쳤으면 하는 것.

○ 침묵 (본디 번역 ‘잠잠하다’)

마 26:63; 막 14:61; 눅 19:40; 20:26; 행 18:9

○ 궁리 (본디 번역 ‘연구’)

눅 21:14; 22:2

○ 신성모독 (본디 번역 ‘참람하다’를 고친 것. 계 17:3에 ‘하나님을 모독’)

마 9:3; 26:65; 막 2:7; 14:64; 눅 5:21; 요 10:33,36; 딤펴전 1:20; 계 13:5

○ 미혹 (속아 넘어감)

마 24:4,5,11,24; 막 13:5,6,22; 눅 21:8; 23:2,14; 요 7:12,47; 고후 11:3; 살후 2:3,11; 딤펴전 4:1; 6:10; 히 5:2; 약 5:19,20; 벵후 2:15; 3:17; 요일 2:26; 3:7; 4:6; 요이 7; 계 13:14; 18:23; 19:20; 20:3,8,10

3.5. 증거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막 16:20)

‘증거’는 ‘하다’를 붙여 활용되는 말이 아니다. 본디 번역에서 전반에 걸쳐 잘못 쓰인 것을 개정판에서 거의 다 ‘증언하다’로 바로잡아졌으나 잘못 그대로 있는 곳이 있다. 예를 들면, 막 16:20; 요 10:25; 요일 5:6,7,9; 계 20:4; 22:16

3.6. 시각 표시 용어

아래 적은 경우는 ‘열 시쯤’ (요 1:39), ‘여섯 시’ (요 4:6), ‘일곱 시’ (요 4:52), ‘낮 열두 시’ (요 11:9)와 같이 현대식 표시로 고쳤는가 하면, 다음의 경우는 고치지 않았다. 개정 원칙상 고침이 바람직 하나, 이 시각 표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각 표시와 일치하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잘 모른다.

제삼시(마 20:3; 막 15:25; 행2:15; 23:23)
제육시(마 20:5; 27:45; 막 15:33; 눅 23:34; 요 19:14)
제구시(마 20:5; 27:45,46; 막 15:33,34; 행3:1; 10:3,30)
제십일시(마 20:6,9)
이경, 삼경(눅 12:38)
밤 사경(마 14:25; 막 6:48)

3.7. 정감에 좋지 못한 개정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본디 번역의 ‘성·고을·동네·읍내·도성’ 따위를 대부분 ‘도시’로 쓴 것은 정감이 굳어지는 느낌이 있다. 예를 들면,

마 9:35; 10:5,11,14,15,23; 11:20; 14:13; 23:34; 막 5:14; 6:33; 눅 4:29,31,43; 7:37; 8:1,39; 9:5,10; 10:1,8,10,11,12; 13:22; 23:51; 24:49; 요 1:44; 4:5; 8:39; 행 7:58; 8:5,8,9,40; 10:9; 14:6,20; 15:21,36; 16:4,12,39; 17:5,16; 18:10; 20:23; 21:30; 22:3; 26:11; 롬 16:23; 딤후 1:5; 계 16:19

3.8. 알맞지 않은 말로 고친 것.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마 16:22; 막 8:32)
이것은 현장 분위기를 미루어 생각할 때 알맞지 못한 표현인 것 같다.

3.9. 한문 문자(‘문자’ 발음이 아님)를 그대로 쓴 것.

중언부언(마 6:7) 유구무언(마 22:12), 비몽사몽(행11:5; 22:17) 일구이언(딤후3:8) 따위는 유위부족(요삼 10)을 풀어서 쓴 것과 같이 풀었으면 좋을 것 같다.

3.10. 뜻을 그르쳐 잘못 쓴 것.

“아담의 칠대손 에녹”(유14)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조상을 기준 한 자손의 대 표시는 본디 번역대로 ‘칠세 손’이 바른 표현이다.

4. 번역(표현)에 관련되는 것.

4.1. 글자대로 번역하여 어색한 것

-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마 5:2)
-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 8:12; 13:42,50; 24:51; 25:30)
-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마 17:27)
-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롬 1:13; 11:25; 고전 10:1; 12:1; 고후 1:8; 살전 4:13)
-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눅 7:1)
-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고전 10:13)
-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4.2. 뜻을 알기 어려운 표현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히 7:10)
- “사람들이 크게 태웁에 태워진지라”(계 16:9)
-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행 6:1)
- “..뉘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마 17:27)
-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마 14:8,11; 막 6:25,28)

4.3. 본디대로 두었으면 좋을 번역

-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막 2:16)
본디 번역은 ‘죄인과 세리들’임.

※마 9:10 본디 번역은 ‘세리와 죄인들’, 개정 번역은 ‘세리와 죄인들’

눅 5:30 본디 번역은 ‘세리와 죄인’, 개정 번역은 ‘세리와 죄인’

○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매장하게...”(마 8:21,22; 눅 9:59,60; 16:22)는 본디 번역 ‘장사’보다 거칠게 느껴진다.

4.4. 상대어(반대어)가 알맞지 못함.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답대한 나 바울은...”(고후 10:1)에서, ‘유순’과 ‘답대’는 적절한 상대어가 아니다.

4.5. 해석 방향을 달리 하게 한 번역.

개정된 본문의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는 사귀라”(눅 16:9)고 하는 것과 본디 번역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어느 것이 원문의 의도인지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으나 두 번역은 해석 방향을 달리 하게 하는 번역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몽땅그려 보건대 개정작업은 완미한 번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높이 평가한다. ‘완미한 번역’이란 원전의 그 본뜻이 우리말에 틈새 없이 들어맞게 옮기는 일이다. 2천년 전에 씌어진, 우리말과는 체계가 전연 다른, 그리스어 원문이니, 그 일이 어찌 쉬운 일이라. 다듬어진 한 번역이 수정되고 거듭 개정되는 작업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마음써야 할 일이다. 이번에 설정된 개정원칙 가운데 중요한 대목 곧 어휘 선택에 관련되는 것의 한 예를 들고, 이 글을 끝맺겠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경우는, 본디 번역(「개역」)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한 절 안에서 낱말이 달라진 것은 상고: 연구 뿐이다.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는 본고 다른 데서 다른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고’와 ‘연구’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한다. 국어사전 풀이로 두 낱말을 맞대어 보면, ‘상고(詳考)’는 ‘상세히 참고함’이고, ‘연구(研究)’

는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알아냄’이다. 이 낱말 뜻을 공통 개념으로 받아들여 우리말 신약 역본에 쓰인 바를 구분하여 보면,

① 구세대 감각으로 쓰인 상고 역본은 구역·펜워 역·게일 역·이송오 역(새성경)·김준식 역.

② 현대 감각으로 쓰인 연구 역본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2백주년 신약」, 「표준새번역」,

※ 고병려 역본에서는 탐구

③ 풀어 읊긴 역본은

살피고(김창수 역)·파고들거니와(「공동번역」)·부지런히 공부(류형기역)·자세히 살핀다(표준신약).

④ 옛스런 낱말 역본은

구삭(「로스역」)·궁구(「천주교 역」).

한 낱말이 우리말 번역 110년 사이에 (「로스역」-1887- 「개역개정」-1995) 이렇게 변화를 자아냈다.

이렇게 언어 현상에 발맞추어 ‘가장 완미한 번역을 마련할 사명을 스스로의 몫으로 끌어 안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 드리자.